



해외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진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2010년 8월 간화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해외학자들의 모습

국내외 석학 배출에 지원 아끼지 말자

한국불교를 배우러 오고 가르치러 가는 학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만큼 한국불교의 위상이 커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일본, 중국, 티베트 및 남부 불교와 비교할 때, 한국불교의 관심과 연구는 거의 도외시 돼왔다.

중국이나 일본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많지만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외국인 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불교학계에서는 한국불교 연구학자 및 교수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구 환경을 종단차원에서 조성해 한국불교학의 위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세계 속의 한국불교학과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해외학자, 그리고 한국불교를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 한국불교를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하는지 살폈다.

김주일 · 이나은 기자



세계 속의 한국불교학자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브룩주립대)는 미국서 활동하는 대표적 불교학자다. 1966~1968년 해인사서 성철 스님 지도로 참선수행한 그는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주경야독으로 공부한 박 교수는 1971년 텍사스남갈리리교대에서 석사학위를, 1977년 버클리대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교수는 미국서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 불교와 원효사상 등을 서구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스토니브룩대에서 학생들에게 참선지도를 한 박 교수는 1978년 뉴욕주립대에서 원효사상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원효사상 세미나'를 개최해 큰 성공도 거두었다.

그 결실로 한국학과 설립이 추진돼 이 대학에 아시아학과가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으며, 박 교수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 찰스 물러 동경대 교수 박진영 미 아메리칸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이들 역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원 스님(美 하와이대 교수)은 철학과 철학전공 교수로 학생들에게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대학원에서는 한국불교와 주변불교와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불교철학 세미나 강좌 등을 개최했다.

스님의 학문적 업적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불교학계에서는 유명하다. 성원 스님은 종파주의와 통합주의를 아우른 중국불교 교판사상사 연구로 위스콘신주립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적 평화학자 글렌 페이지 하와이대 교수는 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계평화 모델"이라며 스님의 논문을 극찬했다.

종매 스님(美 로올라 매리마운트대 종교학과 교수)은 1년에 120여 학생들에게 불교 개론을 강의하며,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한 동신대학인 'IBS 오스트리아 불교대학'에서 영어와 독일어로 8개국 학생 5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 불교 대학에서는 한국의 총림(叢林)에서 이수하는 강원(講院) 교육과 유사(類似)하며, 불교 철학과,

수련 및 불교 포교에 관한 교육 과목을 두루 가르친다.

임미 스님(美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 석사과정, 2002년 박사과정을 밟고 한국과 일본 불교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불교근대화 과정을 고찰한 논문 '한일 불교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미 스님은 2008년 에리조나대학 동양종교학 교수로 임용돼 한국·일본 불교학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이때 임미 스님은 교수임용에 대해 "한국불교가 미국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양성"이라고 강조했다.

헤인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은 UC버클리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대에서 정식 교수로 발령받아 교편을 잡고 있는 헤인 스님은 '선불교

개론' '불교심리학' 등을 가르치며 미국의 젊은 학생들과 불교로 소통하고 있다.

헤인 스님의 최근 관심은 한국의 간화선 전통이 19~20세기를 거쳐 경허 스님을 시작으로 어떻게 다시 크게 일어나 지금 현재 조계종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행 방법이 됐는지다.

스님은 "일본 선불교 위주로 선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서양 학자들에게 새로운 한국 전통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선 중심의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연구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 연구하는 해외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미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대장경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했다. 그것은 대장경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를 비롯해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목록을 통해 대장경의 가치에 주목한 학자들의 대장경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그

는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 종교학회(AAR)에 한국종교분과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산과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를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 알려 온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로는 박성배 교수, 로버트 버스웰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 등이 있다. 이 제자들은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등에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학문적 맥을 이어 가고 있다.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손꼽힌다.

버스웰 교수는 1986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했다. 한국학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했다. 당시 그는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익혔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버스웰 교수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했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학부 때 영역해 출판한 <지눌 법어 선집>을 비롯해 줄곧 지눌의 선 등 한국불교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의 다양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가 서구 학계에 소개됐다.

버스웰 교수는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포리 교수(美 아리조나주립대), 리처드 맥브라이드 교수(美 워싱턴대) 등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다.

찰스 물러 동경대 교수는 27세 때 미 스토니브룩주립대에 진학해 성철 스님 제자이자 제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나 원효 사상을 배우면서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고 조선 시대 불교 서적을 영역해 발간했다. 찰스 물러는 조계종이 불경을 영어와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던 한국전통서간행위원회의 '원효 탐'에 속해 원효 대사 저작의 영어 번역을 맡기도 했다.

한국불교 배우러 온 유학생 20여명

국비 장학프로그램을 찾아 한국에 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된 셸 베르메르슈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에서 고려불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저서 '부처의 권력: 고려왕시대 불교의 정치'(2008년)를 영문으로 출판하고 조선시대 서원에 관한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책 '서원'을 영어로 번역(2005년)했다.

판카즈 모한 교수(57)는 인도인으로선 드문 한국학자다.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한국학부가 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사상·문화교류사와 한국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학부 시절 영문학과 인도사, 철학

을 공부하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래된 것에 주목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76년 고 서경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인도 네루대에 교환교수로 부임해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만들었다.

또한 2005년부터 진각종 위덕대서 밀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나빈법사(네팔)와 실라스님(스리랑카)도 한국불교학을 공부하러 온 대표적 유학생들이다. 특히 네팔 카트만두에서 태어난 나빈씨는 13살때 출가해 수행 중인 법사이며, 불교 진각종 추천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유학생이다. 현재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서 강의하며 유학중인 객원 교수 및 학생은 대략 20여명 정도다.

외국인 한국불교전공자 양성

앞서 언급된 한국불교학자들이 각지에서 불교를 연구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중국, 일본 불교를 전공하는 해외 학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때문에 많은 한국불교학자를 배출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같은 외국 석학을 양성해야 한다고 관련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임미 스님(前 LA 로메리가 불교대 교수)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랭카스터 교수의 제자다. 두 학자는 한국불교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우수 학자와 전공자들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달라이라마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티베트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서양 학자들은 재정적 펀드를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젊은 학자들에게도 골고루 장학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불교를 전공할 경우 특별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서양 학자들은 재정적 펀드를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젊은 학자들에게도 골고루 장학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불교를 전공할 경우 특별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불교학을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소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해외학자들이 영어나 모국어로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연히 관심은 멀어지게 된다"며 "한국불교를 영어뿐 아니라 유럽 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의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미 스님은 "현재 미국의 불교연구 트렌드는 책을 통한 이론습득을 넘어 직접 조사·체험하는 것"이라며 "과거 에리조나대 교수 시절 동양학과 재학생 50여 명 가운데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명 뿐이었다. 한국불교 전공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2100 팩스 053)765-160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설운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 802번지 전화 061)754-5247 홈페이지 www.seonamsa.net